

신앙 생활의 원리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 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 :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2 Cor. 5:17

Therefore if any man be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old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다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비슷한 20대에 중생의 은혜를 함께 나눈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 중생을 체험한 후 옛친구, 담배, 술등의 옛생활을 청산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했지만, 그 친구는 교회는 나가지만, 좋아하던 술, 담배, 옛친구등을 버리지 않고, 옛생활을 그대로 계속했습니다.

그 후 몇 성상이 지난 지금을 보면, 그 사람은 아직도 아무런 영적 성장이 없이, 그 때나 지금이나 별다름이 없이 그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모든 것이 원리에 의해 운용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에게도 신앙생활의 원리를 주시고, 그 원리에 따라 신앙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질서와 체계가 잡힐 뿐만 아니라, 힘의 쓸데없는 낭비가 없어서 훨씬 능력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생활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원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며, 창조주 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 신앙 생활은 이 요소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앙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관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이 자신의 신앙 생활에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창조주 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대하여 왕권을 주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1.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것부터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은 왕이라는 것을 공부하십시오.

시편 5 : 1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시편 5 : 2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5 : 3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마 2:2). 또 누가복음 19:38에서는,

누가복음 19:38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다스리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또한 왕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 :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님은 왕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왕으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시종이나 머슴보다 못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손을 뻗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수수 넘어졌습니다.

다음엔 ‘거기만 있는지 아느냐 여기에서도 나간다’ 하면서 발가락을 짚 내립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우수수 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 : 37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군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진리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진리의 왕이란 진리로 다스리는 왕이란 뜻입니다. 진리로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진리 아래 굴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이 자신의 신앙 생활에 실현되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먼저

로마서 12 :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생각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제물로 드리고 어느 것은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전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려 산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삶 전체를 순종으로 드려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의 의미입니다.

칼빈은 말하길 그것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일이 아닌 이상, 성도가 행하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VOCATION, 소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직업은 그것이 남을 범죄하도록 이끄는 직업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일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성도가 행하는 모든 직업도 하나님이 불러서 주신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무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예배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무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키우는 것,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직업에 왜 귀천이 없습니까? 천지에 왕이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직업이 귀한 것입니다. 왜 근로가 신성합니까? 근로를 통하여 우리가 식물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런 근로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근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까? 나의 성실한 근로 봉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줌으로 인해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뿐만이 아닌,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잘못된 지식의 하나는, 교회 일은 영적 일이고, 교회 밖에 나가서 job을 뛰는 것은 영적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영적 일이고, 가정을 돌보는 것은 영적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썩을 세상 일은 열심히 했지만 주의 일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6일 동안 또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돌아오면, 또 세상일만 하고 왔다고 또 회개합니다. 매주 회개가 반복되지만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생각을 바꾸기까지는 성령님이 왕으로 다스리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에겐 성령님은 주일날 교회에 있을 때만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 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하질 않아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높은 priority로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많은 애들이 삶의 균형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삶의 균형을 잃어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생활 style이 옳은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런 삶이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배하는 삶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setting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급히 바로 잡아여 할 원천적인 문제입니다.

초창기 교회의 신자들은 주로 노예가 참 많았습니다. 아덴의 인구가 10만이면 노예인구가 20만 이었다고 하니, 초대 교회의 신자는 대부분이 노예 신분을 가진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노예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 : 22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골로새서 3 :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골로새서 3 : 24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노예들에게 왕이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는 것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의 변화된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노예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왕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되고, 결국은 거대한 로마제국이 400년이 못되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드러지고, 우리의 삶 전체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된 것입니다.

중생한 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시는 일을 조금씩 조금씩 성취하고 계십니다. 너무 갑자기 아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왕이 되시는 일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장시간에 걸쳐 왕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타락한 품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꾸준히 왕직을 성취하시고 맙니다.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우리가, 왕되신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요 20:27-28).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고전 15:10) 한 말의 진의입니다.

깨뜨려져 주앞에 드러진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왕이 되신 만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의 은혜로, 전체를 깨뜨려 주님께 드려, 전체가 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충만을 말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감성적 분위기 속에서 이해하는데 익숙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한다던가, 진동을 한다던가, 불의 체험을 한다던가, 넘어진다던가 하는, 성령님을 체험의 대상으로 삼는 교회의 분위기에 많이 젖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감각적 체험의 대상, 육신적 체험의 대상으로 삼아선 않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적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가장 강력한 구절은 요 14:16입니다.

요한복음 14 :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다른 이란 말은 헬라어 ALLOS로서 똑같은 다른 하나를 가르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보혜사는 같은 분이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자이시듯 성령님도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을 마음 속 깊이 깊이 넣어 놓아야 합니다. ,

여태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옛사람이 왕노릇하였다고 표현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옛사람의 습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습관의 힘은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의지력으로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일이니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옛사람의 오랜 습관을 제어합니까?

이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됩니다.

말씀에 의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혼 안에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단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성경 공부가 필요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때 하나님은 우리의 와이 되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